

# 해남읍 원도심에 초콜릿 거리 조성...상권 활성화 이끈다

중기부 공모사업 일한...국내 최초 특산물과 연계한 매장  
고구마·밤호박 등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체험장 5곳 집적

해남읍 원도심에 국내 최초로 ‘초콜릿 거리’가 조성됐다.  
해남군은 해남읍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일환으로 현재 총 5곳의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장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콜릿 거리는 해남읍 상권의 중심지인 읍내리·성내리 일원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수제 초콜릿 체험장과 판매장 등 거점 공간을 운영하게 된다.  
초콜릿 판매장은 2024~2025년에 걸쳐 지역주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콜릿 아카데미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창업 및 매장 복합화가 이뤄졌다.  
특히 해남 초콜릿거리의 제품들은 고구마, 밤호박 등 해남 특산물과 연계해 지역적인 특성을 살리고, 고급 원재료를 이용한 수제 초콜릿으로 해남만의 차별화된 초콜릿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수개월간의 전문가 교육을 통해 매장마다 대표 초콜릿 제품을 개발해 제품화 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로컬브랜드 개발은 물론 원도심 관광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초콜릿거리 거점공간으로 조성된 ‘달걀초코’는 다양한 로컬 수제초콜릿을 판매하는 한편 체험장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직접 초콜릿을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땅갈호박당’은 해남 특산물 밤호박을 활용한 초콜릿 디저트를 비롯해 다채로운 초콜릿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12월 영업을 시작한 ‘공심당’은 고급 초코파우더와 생크림을 이용한 초코파이와 고구마쥬독쿠키 등을 선보이고 있다.

해남고구마빵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피낭시에’도 복합매장과 전략을 통해 파베초콜릿 등 다양한 수제초콜릿 제품을 함께 판매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매일시장 2층 ‘오늘하루’ 매장에서는 초코 튀린스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전문시장과 초콜릿 거리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길 일원에 수제초콜릿매장이 자연스럽게 집적되면서 국내 최초 초콜릿거리 조성으로 해남읍의 원도심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있다.  
군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시즌별 테마 이벤트를 통해 ‘해남 초콜릿거리’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이 3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초콜릿거리가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초콜릿거리에서 운영 중인 로컬 수제 초콜릿 판매장.

## 무안군, 여성 농업인 안전 농작업 환경 조성·재해 예방 나섰다

60여명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연계

무안군이 여성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무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3일 실시한 이번 교육은 ‘365일 안전한 농사’를 목표로 농업인이 스스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과 함께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과 연계해 진행됐다.  
특히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소규모 농가도 안전관리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교육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무안군은 2026년부터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농작업 안전 관리자가 농가 현장을 방문해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에 ‘농업인 안전 365 캠페인’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지원하는 ‘무안군형 농업안전 패키지 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시린 무안군 농촌지원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고 예방을 위한 관

리 체계 구축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라며 “소규모 농가일수록 사전에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  
목포시민 관람료 50% 할인  
상생협력 MOU 후속 조치

신안군이 목포시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1004섬 분재정원’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할인은 신안군과 목포시가 지난해 3월17일 체결한 상생협력 MOU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군은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목포시민은 올해부터 1004섬 분재정원을 기존 관람료의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할인혜택은 정원대표소 방문 때 목포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적용된다.  
1004섬 분재정원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과 분재를 감상할 수 있는 신안군의 정원 관광지다.



눈 쌓인 1004섬 분재정원.

신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원 관광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증진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ilee@kwangju.co.kr

## 진도군, 주택·창고 농지 연말까지 ‘지목 현실화’

사업 기간 연장 군민 불편 해소

진도군이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를 올해 연말까지 추진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주택, 창고 등으로 이용 중인 농지는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서의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해 왔다.  
진도군은 과세대상, 항공사진 등을 참고해 지목상 전, 답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 537필지를 조사했으며, 그중 1973년 이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토지 222필지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 현재까지 88필지의 토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성과를 이뤘다.  
다만 농지 중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측량을 통하여 농지와 대지를 분할 해야 한다. 1988년 이전에 주택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는 양성과 절차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등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61-540-3632)에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해 올해도 형질 변경된 농지를 조사해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영광군,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22명 모집

다음달 9일까지 신청·접수

영광군이 취약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고용과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영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8개 사업에서 총 2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이며 선발된 참여자는 3월3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하루 6시간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이다.

세부 사업은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과 스포티움 환경정비사업, 영광군 소공인 정비사업, 공공하수 환경정비사업,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북중산-미탁당 구절초 꽃동산 조성사업, 군남면 찰보리 축제장·지내들 돌탑공원 조성사업, 백수해 안도로 구절초 꽃동산 조성사업 등이다.  
참여자자는 꽃도 식재와 풀베기, 시설물 청소 등 환경정비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여행 1+1’ 사업, 5개월간 순매출 7억

관광객 1만 4000여명 유치

영암군은 방문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 ‘영암여행 1+1’ 사업이 5개월 동안 순매출 7억 원 이상 성과를 남겼다고 25일 밝혔다.  
‘영암여행 1+1’은 외지인이 1인 또는 2인 이상 팀으로 영암을 찾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소비 연계형 관광지원사업이다.  
여행객이 5만원 이상을 쓰고 영수증과 신분증, 관광지 사진 등을 관련 홈페이지에 올리면 1회차 2만 5000원, 2회차 3만 5000원, 3회차 5만 원 상당의 영암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7월 31일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영암여행 1+1’ 분석 결과 사업 기간 영암을

찾은 관광객은 총 1만 4119명, 이들이 지출한 소비액은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7억 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센티브 3억 2500만원은 ‘월출페이’로, 4600만 원은 영암몰 포인트로 지급돼 지역경제에 다시 환원됐다.  
업종별은 음식점 48.8%, 숙박업소 23.6%, 생활·유통업소 16.6%, 카페 5.6% 등 순이었다.  
영암군은 올해 ‘영암여행 1+1’ 참여 기준과 인센티브 지급을 더 현실화한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관광객이 오고 머물고 쓰게 만드는 관광-소비 패턴을 지역이 주도하겠다”라며 “영암여행 1+1로 지역경제와 관광이 순환하며 끊임없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영암군 월출페이 기부 ‘온돌저금통’ 서비스 개시

영암군이 지역화폐 ‘월출페이’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온돌저금통’ 서비스를 개시했다.  
온돌저금통은 휴대전화 앱 월출페이 기부메뉴를 매개로 영암군민이 기부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이다. 앱에 올랐을 11개 읍·면의 도움이 필요한 11명 이웃의 사연을 보고, 영암군민이 선택해 월출페이에 있는 적립금을 나눌 수 있다.  
월출페이 기부는 올해 6월까지 할 수 있고, 각 읍·면 당 목표 모금액은 100만원이다.  
영암군은 모금액이 차면 월출페이로 각 읍·면 사연자에게 지급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생활비로 쓰도록 할 예정이다.

지급 수단을 월출페이로 해 이웃돕기 성금이 소상공인 매출 등 지역 내 소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온돌저금통 방식으로 17가구를 선정해 시범 모금을 진행해 100만원을 전달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나눈, 지역경제와 연결하며 영암형 복지 순환 체계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유미경 영암군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온돌저금통은 영암군민의 참여로 이웃을 돌보고 지역경제까지 살리는 착한 나눔소비 모델”이라면서 “군민의 많은 관심과 기부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조석훈(가운데) 목포시장 권한대행이 ‘섬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목포시, 섬권역 14개 사업 추진 상황 총점검

고하도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목포시가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종합 점검했다.  
목포시는 최근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섬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고하도·달리도·외달도·장좌도 등 섬권역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14개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목포 큰그림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의 세 번째 회차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련 국장과 부서장이 참석해 사업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주 인프라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고하도 권역에서는 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 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건립을 비롯해 해상데크 및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 이촌뉴딜300 사업, 바다낚시공원 조성 등이 논의됐다.  
달리도와 외달도 권역은 섬 간 접근성 강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뤄졌다.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설치와 진입 해안도로 정비 등을 통해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보타닉가든 조성, 해수욕장 및 해수욕장 운영 등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도 함께 논의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